

집에서 주름·탈모까지 관리 3050 '애정품' 된 뷰티기기

올 국내시장 규모 1.6조

LG전자가 석권하던 국내 뷰티기기 시장에 후발주자들이 속속 가세하고 있다. 뷰티기기 시장은 2017년 LG전자의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 '프라엘'의 등장으로 본격적인 성장세에 접어들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점차 커졌다. 최근에는 20만~30만원대 중저가 2세대 뷰티기기부터 납성용 탈모 치료기까지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대기업 이어 중소기업도 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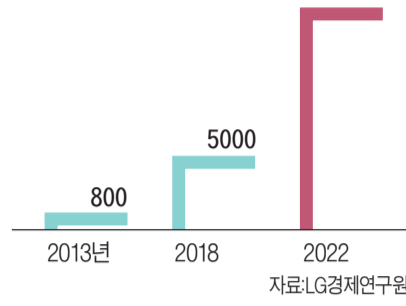
1일 화장품업계 따르면 국내 화장품 기업과 의료기기 업체들은 확대되는 뷰티기기 시장을 겨냥해 새 마사지기기를 속속 선보이고 있다. 뷰티기기는 30~50대 여성이 주름 등 피부 개선을 위해 집에서 사용하는 마사지기기를 주로 가리킨다. 최근엔 탈모 치료를 표방하는 기기도 등장했다.

중소 화장품 브랜드 메디큐브는 지난 3월 '에이지알(사진)'이라는 중저가 뷰티기기를 출시해 현재까지 총 20만 대를 팔았다. 일본에서 3개월 만에 4만5000대를 판매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 결과 일본 쇼핑몰 라쿠텐의 '뷰티기기 부문' 1위에 올랐다. 가성비를 중시하는 30~50대 여성 소비자를 겨냥해 배우 김희선을 광고 모델로 기용하기도 했다.

의료기기 기업들도 시장에 뛰어들었다. 의료기기 전문 업체 듀얼스니, 홈세라 등은 200만원대 고가 뷰티기기를 내놨다.

커지는 뷰티기기 시장 (단위:억원)



LG전자가 주름잡던 국내 시장 화장품 이어 의료기기업체 가세

'김희선 마사지기기' 애이저알 올 3월 출시 후 20만대 팔려 홈쇼핑 수백만원대도 불티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고가 기기인 만큼 홈쇼핑 등에서 렌탈 형식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 중 듀얼스니 제품은 일명 'SES 유진 마사지기기'로 불리며 CJ온스타일 홈쇼핑을 통해 올해 50회 이상 소개됐다. 방송마다 10억원이 훌쩍 넘는 주문 금액을 올렸다.

◆'출추전국' 홈 뷰티기기 시장 뷰티기기 시장은 계속 확대되는 추세다. LG경영연구원 따르면 국내 뷰티기기 시장은 올해 1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홈뷰티' 시장이 형성된 초정기인 2013년(800억원)과 비교해 약 20배 성장한 규모다. 화장품 업계 관계자는 "10여 년 전에는

필립스와 브라운 등 글로벌 브랜드들이 제모기 등을 소규모로 들여온 게 전부였으나 최근 들어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홈뷰티 상품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본격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피부과에 가는 소비자보다 집에서 혼자 미용 관리를 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병원 피부과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대형 고주파 뷰티기기의 가격이 저렴해지고, 크기도 작아지면서 30~50대 여성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해외 공략 나서서 LG-아모레

화장품 기업인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등은 해외에서 뷰티기기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고 있다. LG생활건강은 3월 주주총회에서 사업 목적에 의료기기 제조를 등재하고 '뷰티 디바이스'를 생산할 예정이다.

올 4분기에는 집에서 혼자 문신할 수 있는 미니 타투 프린터기를 내놓을 계획이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국가에서 뷰티기기 시장이 성장하는 것을 염두에 둔 행보다.

미국 리서치 기관 포레스트앤드스터리번은 중국의 뷰티기기 시장이 올해 2조 원, 내년에는 3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업계 관계자는 "제품을 쉽게 베낄 수 있는 화장품과 달리 뷰티기기는 전자-바이오 기술이 접목돼 중국 기업이 카피하기 쉽지 않다"며 "이 때문에 화장품 기업들의 관심이 늘고 있다"고 했다.

차량내 어디에 놔도 인식하는 하이패스 단말기

▶ 으뜸종기

스타트업 자임 '스마트패스'

고속도로 하이패스 단말기는 대부분 적외선(IR) 송수신 방식이다. 차량의 터닝(선회)이 걸리면 인식이 떨어진다 단점이 있다. 차량 앞 유리 특정 위치에 부착해야 인식이 잘 되기도 한다.

이에 비해 스타트업 자임이 제조하는 하이패스 단말기 '스마트패스(사진)'는 라디오 주파수(RF) 송수신 방식이다. 광대역 통신이 가능해 차량 내 설치 위치, 환경 등의 영향이 적다. 박준상 자임 대표는 1일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대시보드부터 글로브 박스까지 차량 내 다양한 곳에 설치해도 인식 불량이 없다"고 설명했다.

자임의 하이패스 단말기 가격은 개당 약 4만5000원이다. 자임은 작년 매출 22억2000만원, 영업이익 1억3800만원을 달성했다. 누적 판매량은 20만 개 이상이다. 현재 해외 자동차 제조사와 업무 협약을 추진 중이다. 올해 매출은 35억원으로 예상된다.

1993년생인 박 대표는 통신 기술을 이용해 제품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대학교 2학년 때 차량용 통신 단말기 개발 제조사에 입사했다. 기존 IR 방식 하이패스 단말기의 문제를 파악하고 RF방식의 하이패스 제품화에 성공한 뒤 별도 사업부로 분사 창립했다.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하기 시작했다. 박 대표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을 구축하는 데 자임이 일조하겠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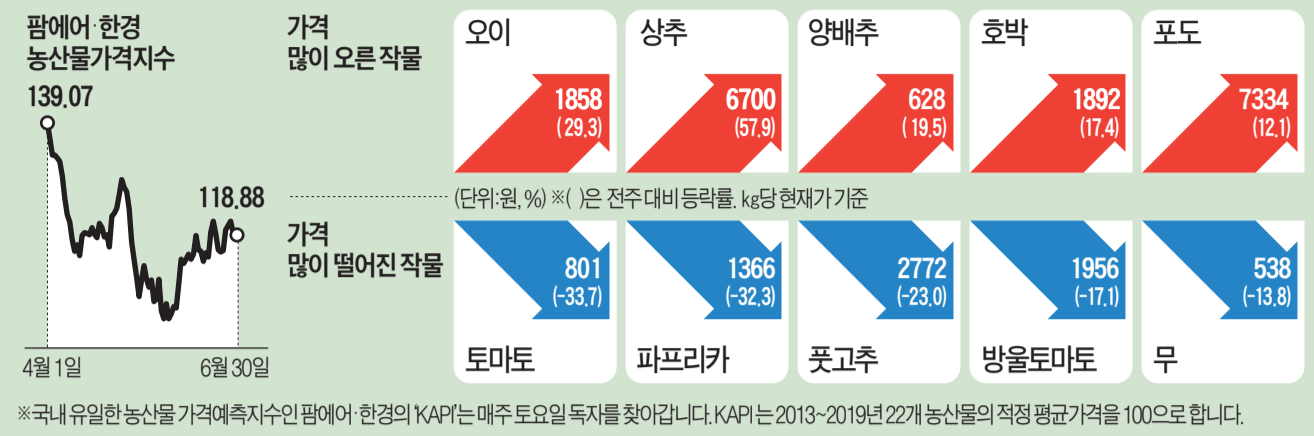
'레깅스의 샤넬' 룰루레몬 이태원에 대형 매장 열어

'레깅스계의 샤넬'로 통하는 룰루레몬은 국내 최대 규모의 매장을 서울 이태원에 1일 오픈했다. '룰루레몬 이태원 스토어'는 두 개 층으로, 총 727㎡ 규모다. 한국뿐 아니라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에서 가장 크다.

이태원 매장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다양한 룰루레몬 제품을 선보인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우선 골프-테니스 컬렉션 이후 새롭게 확장된 하이테크 컬렉션을 이태원 스토어에서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다. 운동복과 일상복 라인 'OTM(On the Move)', '랩(lab)' 컬렉션도 선보인다. 룰루레몬은 매장 오픈을 기념해 10만원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아티스트 협업 티셔츠를 선착순 500명에게 증정한다.

가뭇에 이른 장마... 오이값 38% 올랐다

(전달 대비)



팜에어·한경 농산물 가격지수

여름 제철 채소인 오이 가격이 급격한 상승 궤적을 그리고 있다. 최악의 가뭇에 이어 폭우를 동반한 장마가 시작되면서 농사에 타격을 준 영향이다.

1일 팜에어·한경 농산물 가격지수(KAPD)를 산출하는 예측 시스템 데란에 따르면 전년 국내산 오이의 kg당 도매가격은 1858원으로 지난해보다 37.5% 올랐다. 평년과 비교하면 39.7% 비싼 금액이다.

소매가격 상승 폭도 비슷하다. 농산물 유통 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름 오이인 백다디 품종은 10개에 7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 달 전보다 34.4% 뛰었다. 가시오아와 취정오이도 같은 기간 상

승률이 40.0%에 달했다.

이런 움직임은 날씨가 급변하면서 시장에 나오는 상(上)품 오이 물량이 줄어든 영향을 받았다. 오이는 시원한 온도(22~28도)에서 잘 자라는 작물로 기후 변화에 민감하다.

주산지인 강원도가 6월 초까지 가뭇 피해를 봤고, 생육기에 일교차가 커 품질이 떨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A 대형마트 바이어는 "출하가 평소보다 2주가량 늦어졌는데, 여기에 이른 장마가 겹치면서 시장에 공급되는 물량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KAPI의 예측 모델에 따르면 오이 가격 상승세는 8월 중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오이는 일조량이 부족한 장마철은 물

론 무더운 한여름에도 출하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2020년에 품귀 현상을 빚은 토마토는 올해 작황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봄철 가뭇이 토마토의 당도를 높였다. 토마토는 17~27도에서 자라고 25~30도에서 과실이 커지는 고온성 채소다.

KAPI에 따르면 토마토 도매가격은 kg당 801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2% 하락했다. 소매가격은 kg당 3672원으로 작년(3552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B 대형마트 채소 담당 바이어는 "수박, 자두, 천도복숭아 등 제철 과일 수요가 늘어나면서도 마토 수요는 소폭 감소했다"며 "공급량은 늘었는데, 수요는 줄어 가격이 평년보다 저렴해졌다"고 말했다.

한 달만에 10%↓ ... 상승세 꺾인 돼지고기값



정형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이 1일 이마트를 찾아 돼지고기 판매 코너를 둘러보고 있다. 뉴스

'금(金)검살'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빠르게 치솟던 돼지고기 가격이 한 달 만에 10% 넘게 하락하며 안정세를 찾고 있다. 정부가 오르는 물가를 잡기 위해 0% 할당관세를 적용한 수입 돼지고기가 1일을 기점으로 대형마트에 풀리면서 추가 하락 가능성도 점쳐진다.

1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기준 전국 돼지고기(제주 제외) 평균 도매가격은 kg당 5318원으로 한 달 전 5월 30일(6284원)보다 15% 하락했다. 연중 최고치를 찍었던 5월 3일(6786원)에 비하면 22% 낮은 수치다. 6~7월 평년

수준인 5040원대에 근접한 수준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돼지고기 가격 상승세가 6월 들어 꺾인 것은 외식업체 수요 안정화와 할당관세 인하, 사료구매자 금 지원 등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가 맞물린 결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4월 중순 거리두기 조치 해제로 외식업체가 대량의 재고 확보에 나서면서 kg당 4000원대였던 돼지고기 가격이 2주 만에 6000원대를 뚫었다"며 "0% 할당관세 적용 등 정책에 대한 기대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농협 영농자금 저금리 대출 5000만원 한도 年2%대 이자

농협상호금융은 농가의 영농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저 연 2%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채출발 농촌 희망 저금리대출' 상품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농협중앙회가 최대 연 1.5% 이자를 지원해 금리 부담을 낮춘 상품이다.

이 상품의 총한도는 1조원이다. 청년 청년농, 귀농인, 농·축협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가까운 농·축협에서 1인당 최대 5000만원의 운전자금을 3년 이내 기간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기존 영농자금의 대환대출도 신청할 수 있다. 농협은 농업인 약 2만 명에게 450억원 규모의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협은 지난달 7일 소비자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농업인과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3600억원 규모의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 상생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성의 농협중앙회장은 "이번 영농자금 이자 지원을 통해 농업인이 생산비 부담을 덜고 영농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www.skylife.co.kr

고객의 바람을 담다! 스카이라이프

고객이 원하는 새로운 세상의 변화
스카이라이프에서 더욱 빛납니다.

스카이라이프는 방송·인터넷·모바일
유무선통합서비스를 합리적으로 제공하며
실속있는 소비생활을 선도합니다.

kt skylife